

아동·청소년 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취약 분야 파악

박 남 수 /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 시대의 현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본 연구에서는 손상 발생 현황에 근거한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안전증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0~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손상발생 현황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손상발생 특성과 손상유형별·세부특성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는 가구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인구집단의 값으로 추정하여 활용하였음.

■ 연구결과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고 또는 중독의 경험에 대해 남자의 9.7%, 여자 4.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성별·연령군별로는 남성의 경우 12~14세 연령군에서 여성은 0~3세 연령군에서 가장 많은 손상경험율을 나타냈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손상경험율이 증가하였으며, 거주지역별 특성은 차이가 없었음.

성별·연령군별 주요 손상발생기전은 남녀 모두 추락 및 사람이나 물건에 부딪힘이었음. 11세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 11세 이상 연령군부터 사람에게 맞아서 발생하는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손상기전별 손상발생장소는 0~3세 연령군은 가정에서의 추락, 4~6세 연령군은 가정에서의 충돌, 7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모두 학교를 포함한 보육교육시설에서의 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추락손상에 대해 손상발생장소를 연령군별로 살펴본 결과, 0~3세는 건물내부, 가구, 계단, 4~6세 연령군은 놀이터, 인도나 차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11세 연령군은 운동장, 계단, 놀이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음.

거주지역별로 연령군별 추락이 발생한 장소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보다 공원이나 화장실 계단을 제외한 건물 내부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지역의 경우 읍·면지역보다 놀이터, 인도·차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결론 및 제언

아동 및 청소년의 손상 발생과 관련한 특성은 각 연령군별 매우 다양하므로 각 대상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또한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즉 부모 및 양육자의 특성, 생활공간의 환경, 아동·청소년 자체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요구됨.